

대림 제3주일 복음 나누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 11,2-11)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 마태 11,2-11
-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잠시 묵상 후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승진이나 사업 등, 인간적으로 간절히 원해서 기도한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교우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믿음에 회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기도와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은 정반대에 놓여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섭리 된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 뜻을 따라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내 기도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느님과 신앙을 의심하는 태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종교관에 머물러있는 저급한 모습일 뿐입니다. 깊은 신앙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청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과 기도를 통해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임하소서. 제 마음에” 올해에는 주님께서 내 안에 탄생해 오시는 성탄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들어오시기를 청한 적이 있습니까?
- ❖ 인간적으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은 있습니까?

6. 안건토의와 공지사항 전달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